

주간기도정보

2025. 12. 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고환율 직격탄 맞은 해외 선교...생계·사역 이중고

후원금 실질가치 감소...교회·성도 '관심과 지원' 절실



최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해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송금받는 후원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면서 사역 운영비와 생활비 전반에 압박을 받고 있다. 사역비, 교육·구호비, 현지 교회 운영비 등 달러로 지출되는 비용은 그대로지만, 환전 시 확보되는 달러가 감소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이모 선교사는 “외국에 살고있는 선교사에게 환율 폭등은 생활의 문제가 걸린 큰 고난”이라며 “원화로 후원금을 받아서 달러로 환전한 후 다시 리엘(캄보디아 현지 통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환율이 올라 큰 환차손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일부 선교지에서는 사역 축소도 나타나고 있다. 전도·교육 프로그램, 현지인 사역자 지원, 건축, 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면서 계획했던 활동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다.

한 해외선교지원단체 관계자는 “최근 몇 달간 환율 상승으로 선교사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동일 금액의 후원금이라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긴급 지원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교비를 달러로 책정하는 교회들도 등장하고 있다.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는 2023년부터 선교비를 달러화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전년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환차손을 보전해 선교사들의 재정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본 이동, 국내 경제 불확실성,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량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원화 약세를 지속시키고 있어 단기간 내 환율 안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선교단체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사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후원 교회·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정용구 협력총무는 “환율위기를 겪을 때 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잘 대비하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되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8:2,9)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2-13)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환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움츠러들기 쉬운 이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생활의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선교를 위해 풍성한 연보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선교사님들이 풍부할 때에든지 비천할 때에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주사 도리어 선교사역이 힘있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로 요동하여 흔들릴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따르는 예수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더욱 이뤄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빈곤 앞에서 무너진 혈육의 정...해산시 여성 꽃제비의 죽음

생활난에 이혼하고 부모 형제 있는 고향으로 왔지만 외면 당해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이혼하고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로 돌아온 한 여성 주민이 가족의 외면을 받고 길거리에서 꽃제비(부랑자) 생활을 하다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11월 초 해산시에서는 청진시로 시집을 갔다가 생활난에 이혼하고 돌아와 길거리에서 밥을 빌어먹으며 지내다 사망한 한 여성 주민의 장례식이 치러졌다”면서 “많은 주민이 이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8월 이혼하고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친정 식구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이 여성은 이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지만, 그마저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꽃제비로 전락했다.

그렇게 그는 두 달 이상 길거리를 전전하며 구걸하는 생활을 하다 끝내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다행히 이 여성을 알아본 지인이 가족들에게 그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는 정확한 사망 날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다음 날 바로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장례식 당시 이 여성의 가족들은 그가 꽃제비로 길거리를 헤매던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했던 것을 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각자 본인이 처한 벅찬 형편에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외면했던 것이었겠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게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돈 없으면 부모 형제 사이도 남보다 못한 세상”이라며 “사람들도 워낙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이 여성을 도와주지 못한 부모 형제를 대놓고 손가락질하거나 탓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빈곤 앞에서 혈육의 정도 무너져가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극심한 생활난에 꽃제비로 전락해 거리를 전전하다 숨지는 이런 사례들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게 등장해 주민 사회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이 여성의 장례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가난이 사람을 참으로 모질게 만든다”, “고생만 하다가 길에서 숨을 거뒀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딸을 둔 부모들이나 시집을 앞둔 미혼 여성들에게 근심을 더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곳에 시집을 가야 부모도 자기 자신도 고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데, 요즘은 모두가 어렵다 보니 일부 딸을 둔 부모들은 딸에게 차라리 시집가지 말고 혼자 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되,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편 118:16-17,26)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야고보서 2:15-16,22)

하나님, 생활난에 꽃제비로 거리를 전전하다 끝내 죽음을 맞은 한 여인의 기막힌 사연을 고하며 자기 가족조차 외면할 만큼 극심한 빈곤에 내몰린 복한을 돌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방관하며 오직 자기 권력과 유익만을 탐하는 김정은 정권의 권세를 파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사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어진 심령에 복음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중에도 서로를 돌아보는 선한 손길을 통해 이들의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 이 땅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선포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켜라”

140주년 맞은 기독교학교, 정체성과 사명을 재점검하다



한국 기독교학교 설립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최근 발간한 기념 자료집을 통해, 한국 기독교학교가 걸어온 길과 시대 변화 속에서 직면한 도전,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한국 기독교학교는 근대 교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재 양성과 가치교육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근대식 학교 설립, 여성교육의 문호 개방, 의학·간호 인재 양성, 민주시민의 교육 등 기독교학교는 14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교육적 기초를 세웠다.

장동민 교수(백석대 부총장)는 기독교대학의 현 상황을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당수 기독교대학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대학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는 채플을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며, 예배가 교육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채플이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학생의 세계관 형성과 가치관 교육을 위한 전략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승수 교수(명지대 교육대학원)는 기독교학교의 위기가 개별 문제가 아니라 평준화·사립학교법·2022 개정 교육과정·고교학점제 등이 만들어 낸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선발권·교육과정 편성권·교사임용권이 제약돼 준공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준화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사교육비 증가, 선택권 축소, 사립학교 정체성 약화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유지·폐지 논쟁을 넘어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미션은 발표를 종합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공동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공동공개전형’ 도입과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종교 과목이 제한된 현실을 기독교학교 정체성 교육의 제약으로 보고, 해당 규제 완화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으며, 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학미션은 종교계 세계관 기반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 중이며, 고등학교용 ‘종교와 미래’ 교과서를 완성하고 중학교·대안학교용 교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인권위·교육청의 종교활동 권고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부모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바우처와 대안교육 지원 정책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기독교일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명기 32:46-47)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누가복음 24:45-48)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에 기독교학교를 세우사 한국 교육의 뿌리를 복음 위에 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도전으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학교가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니, 나라의 제도로 인해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보호하사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학교 되게 하소서. 다음세대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사 다음세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세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